

5면에 이어서

나를 이긴 자는 천하를 이긴 자다

‘이러한 시험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긴자가 되어서도 물질의 음란을 이기나 못이거나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제단을 얻을 때도 해와 이긴자에게 돈을 타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된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티끌만치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나라를 얻는 것보다 쉬우나 긴 세월동안 변함없이 '나를 없애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긴 세월 동안 이리도 흔들려 보고 저리도 흔들려 보면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이긴 자는 온 세상을 이긴 자

초창기에는 제단에 나와 예배를 보는 도중에 호출을 당하여 방에 갇히게 된 적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방안에 가둬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지, 왜 가두고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된 후 수백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사람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둬 놓았던 것은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 있나 없나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나라는 것이 살았다면' 섬세한 마음이나 노여운 마음이 생겼겠지만, 그저 가둬 놓으니 갇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도 밥도 갖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운으로 보면 못을 박은 문을 발로 차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두시니 죽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생명과 마음을 맡겼던 것입니다. 때리면 맞고 욕을 하면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으니 몇 시간 후에 사람을 시켜서 저기 갇혀 있는 조(曹)하나님은 이제 다 이겼으니까 못을 뽑아주라고 하여 내보내 주었던 것입니다. 이긴자는 모든 연단과 시험을 다 이긴 자입니다. 물속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으면 흔들렸을 때는 그 찌꺼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의 찌꺼기가 남아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려 보았던 것입니다. 욕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방속에 가두고 대문으로 방문을 박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섬세한 마음이 들면

마귀에게 점령되면 하나님 얼굴을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안 떠오른다. 그럴 때는 '가로막는 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하면 가로막았던 마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승리제단에 나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이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하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 멀리서 영모님의 차가 지나가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여러분들 중 승리제단에 나온 지 몇 년이나 된 사람이 입에다 남의 말을 담은 정도면 그 사람은 나와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형제 죄가 내 죄요, 형제 잘못이 내 잘못이다. 그만큼 배웠으면 다는 못 지켜도 입에다 재갈을 물 정도는 되어야 한다.

아직도 '나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라는 것이 완전히 죽은' 고로 섬세한 생각이나 노여운 생각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나와 그럴까 하는 마음이 전혀 안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를 하니 '나를'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극기승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온 세상을 다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살다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라는 것이 죽은' 상태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놈이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은 이러 저러한 점을 잘못했다고 말할 때 내가 뭘 잘못했어?'하고 화를 내며 말대꾸를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죽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부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한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묵묵부답인 상태로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감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약해져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은 강해져

은혜를 받으면 연고없는 땀방울이 와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면 더 큰 시험이 오고 또 그것을 이기고 나면 더욱 더 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차례 시험을 해도 계속해서 이기면 마귀도 해봐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고로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나라는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긴 것'이지 외부의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닌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겼다는 것은 천하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천당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비록 죄인이라도 이 사람에게는 다 천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만 이기면 이 세상이 천당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천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마요 사기꾼이요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이기면 도둑놈도 강도도 그렇게 선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겼느냐 못 이겼느냐 하는 이것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려면 자신의 약점을 알아 그 약점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하시(下視: 앞잡아 낮추 봄), 무시(無視)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반대생활을 해야 그 자존심 마귀가 죽습니다. 과거에는 은혜받은 얘기, 내가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얘기를 하길 좋아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반대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보다는 나의 못된 점, 수치스런 점, 나쁜 점을 말해야 자존심 마귀가 죽는 것입니다. 그때에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 사람은 식사할 때 맛없는 반찬만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자존심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졸리면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다가 쉬고 싶으면 더욱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만 극기생활을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스님들은 산에서 고행을 하면서 잡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극기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쉬고 싶는데도 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 힘이 들어 팔과 다리가 아프다 못해 후들후들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생활은 죽음의 경지까지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경에까지 가서 죽기 직전까지 싸워서 가아(假我)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상시 생활에서 항상 회생적으로 움직여서 좋은 것은 상대방에게 주고 덜 좋은 것을 내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습관이 될 때에 '나라는 의식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하나님의 영은 강해져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여버리고' 좌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러한 생활을 하여 이긴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여 이기지 못할면 백날 이 승리제단 나와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이루어져 하나님이 되는데 자기만 죄인의 소굴에서 허덕이면 그것이 바로 헛수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유율법을 어기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호통이 떨어지므로 생각의 자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긴 자로 키우기 위해 해와 이긴자에게 100% 투시의 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금이라도 생각이 잘 못되면 불려가 개페뎃 맞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려고 해도 그림자 자유율법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입에다 재갈을 물어야 은혜가 간직돼

마귀에게 점령되면 하나님 얼굴을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안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가로막는 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하면 가로막았던 마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제단에 나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하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 멀리서 영모님의 차가 지나가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승리제단에 나온 지 몇 년이나 된 사람이 입에다 남의 말을 담은 정도면 그 사람은 나와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가 내 죄요, 형제 잘못이 내 잘못인 것입니다. 그만큼 배웠으면 다는 못 지켜도 입에다 재갈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율법의 기본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서 하나님에게 누를 끼치게 되거나 앓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고 말을 하므로 묻는 말에도 즉각 대답을 안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제 3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좀처럼 없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몇 년동안 받은 은혜를 몽땅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섬세한 말을 하는 것이 죽을 죄에 해당됩니다. 그 죄를 사함 받으려면 1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 그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은 좋아해도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쏟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옛 성질을 죽이고 반대로 행동해야 새사람이 돼

승리제단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성격이 어떻고 하면서 그 성격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마귀 성격을 버려야지, 성격대로 살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속에 있는 성질의 반대로 움직여야 마귀가 죽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면 서서히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고 한 번쯤 멈춘다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옛날 성품을 죽이고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자신을 이기면 극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극기승자가 되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극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생사(生死)가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다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루 빨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 완성자가 된 이후에도 해와 이긴자에 의한 시험을 삼사년간 계속 받아?

『첫째 아담은 생명(生靈)이요 둘째 아담(미처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화성님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긴 이긴자로서의 완성자가 되어,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는 구세주(살려 주는 영)이 되는 둘째 아담이 되었다. 완성자란 스스로 완성자라고 자칭한다고 완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틀림없이 완성자의 경지에 이르렀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완성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들은 자이다.

완성자 구세주는 완벽하고 완전한 신이다. 지금까지 완전한 신이 없었다. 살려 주는 둘째 아담이 되는 구세주가 나오므로써 완전한 신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신이다. 하나님께서 완성자 구세주에게 "참~ 너는 선하다. 너는 참 아름답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다 주마!"라고 하신 말씀대로 온 우주를 다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세주가 우주를 손아귀에 쥐고 지금 천지개벽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 하나님의 것을 마귀한테 빼앗겼던 것이다. 그런데 육천년 만에 이긴자 구세주가 나와서 마귀한테 가지고 있는 온 우주를 도로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전지전능을 갖춘 완성자가 되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81년 8월 18일 세상에 나와서 전도를 시작한 지 3, 4년 동안에도 해와 이긴자에 의한 자존심 유무(有無)의 시험을 받았던 것이다.*

전세계에 알리는 진짜 경전 이야기 38회 전 세계여 모두 깨어나자!

〈하나님을 석방시키는 방법과 이기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방법 3탄〉

자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을 알았으면 달려와서 은혜자 앞에 굴복해야 한다.

- 11. 영은 마음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논한다.
- 12. 천당도 마음이요 생명과일도 마음이므로
- 13. 반대로 선악과도 마음이요 지옥도 마음이요 욕심도 마음이다.
- 14. 지옥이 마음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말씀과 말씀 속에서 찍어내고 있는 것이다.

15.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앞을 내다보는 눈이므로 기록되지 않은 사이사이 속에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내고 있는 것이다.

- 16. 그러므로 하늘나라도 마음이요
- 17. 생명과도 마음이요
- 18. 하나님도 마음이요

- 19. 지옥도 마음이요
- 20. 선악과도 마음이요
- 21. 마귀도 마음이다.
- 22. 천국은 의인의 마음이요
- 23. 지옥은 죄인의 마음이다.
- 24. 은혜를 간직하려면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를 죽여야 한다.
- 25. 나를 죽이려면 형제를 하나님처럼 여기면 '나라는' 것은 개똥이 된다.
- 26. 이것이 마음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다.
- 27. 이와같이 죄를 짓지 않는 비결과 은혜를 간직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분별을 못하면 그것은 누구든지 마귀종자다.
- 28. 자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을 알았으면 달려와서 은혜자 앞에 굴복해야 한다.

Real Scripture Stories to Tell the World—Episode 38 All over the world! Let All Wake Up!

〈How to be free 'Stuck in me, God' and how to contact Victor God – Part 3〉

If you know that you are captured by Satan, you should surrender in front of God.

- 11. Spirit is mind according to the Bible.
- 12. As heaven is mind, the fruit of life is mind,
- 13. The forbidden fruit is mind, and desire is also mind.
- 14. The Bible does not say "Hell is mind". But This Man can grasp it.
- 15. As This Man has eyes that can see through from the beginning to eternal time, He can grasp the surprising truth which is unrecorded between the lines.
- 16. So heaven is mind.
- 17. The fruit of life is mind.
- 18. God is mind.

- 19. Hell is mind.
- 20. The forbidden fruit is mind.
- 21. Satan is mind.
- 22. Heaven is the mind of a righteous man.
- 23. Hell is a sinner's mind.
- 24. If you keep grace, you should kill the Satan attacking you.
- 25. To kill 'I', you should regard anybody as God, and then you become nonentity.
- 26. This is the way that kills the 'I'.
- 27. Like this, 'This Man' teaches you the secret of keeping grace, so those who do not distinguish this are the seeds of Satan.
- 28. If you know that you are captured by Satan, you should surrender in front of God.*

by Hana